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권기수\*

공동/한국외국어대학교

고희채

공동/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won, Kisu and Hee-Chae Ko (2018), "A Study on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Popularity in Latin Americ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popularity) in Latin America based on economic voting theory. In this study, the panel linear model is set as the basic equation for its analysis. In this analysis, the popularity of 18 presidents in Latin America using Latinbarometro data was employed as a dependent variable. GDP growth rate, GDP per capita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consumer price rate, government expenditure, and misery index (unemployment rate + consumer price rate)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fir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Latin America,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s have proven to be closely linked to economic growth. As GDP and GDP per capita increase, the popularity of the president increases. Government spending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approval rating of the president in Latin America. In contrast,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prove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opularity of the president in Latin America. One of the important result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consumer prices on the approval rating of the president is minimal in Latin America.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the misery index as a comprehensive economic indicator that determines the popularity of the president.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sery index has a sufficient possibility

---

\* Kisu Kwon is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rtugues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Hee-Chae Ko is Research Fellow a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Direct correspondence to Kisu Kwon (kskwon@hufs.ac.kr).

as a representative economic variable affecting the approval rating of the president.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misery index and the popularity of the president are very closely related.

**Key Words:** economic voting, presidential popularity, macroeconomic determinants, Latin America, misery index

## 서론

최근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며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18개국 평균 기준)은 2009년에 60%에 달했으며, 당시 70% 이상의 높은 인기도를 누렸던 대통령은 6명에 달했다. 역사상 라틴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09년을 정점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 2016년의 지지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수치였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상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일차산품 붐의 종식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혹은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요인 중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직접적이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대통령의 지지율간의 관계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두 번째 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경제투표(economic voting) 이론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라틴아메리카 각국별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경제지표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장에서는 경제투표 이론에 기초해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을 대상으로

2002-2016년 기간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다.

## 이론적 검토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인기도

### 경제투표 이론에 대한 검토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투표(economic voting)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제투표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정부나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즉 선거는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시장 기능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경제투표 이론에 근거해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크레이머(Kramer 1971)에 따르면 경기가 개선되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악화되면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경제투표를 둘러싼 논쟁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hin and Yoon 2009). 여기서는 정치적 변수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고 세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첫 번째 논쟁은 방법론을 둘러싼 것으로 어떠한 경제지표가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국가 경제 혹은 개인 경제를 평가하는가이다.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GNP(GDP) 증가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밖에 실업률, 물가, 임금 등도 주요 변수로 활용된다. 그러나 어느 한 경제지표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경제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Nadeau and Lewis Beck(2001, 160)은 포괄적인 경제지표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지향적 투표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을 갖고 있는냐를 둘러싼 논쟁이다. 회고적 투표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과거와 비교해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보상이나 처벌을 하는 과거 회귀적 투표행위를 말한다. 그에 반해 전망적 투표란 현재의 경제상황보다는 미래의 경제전망을 근거로 투표를 하는 미래지향적 투표행위를 일컫는다(Kim 2005, 151). 경제투표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회고적 경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망적(미래 지향적) 경제 평가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지막 논쟁은 유권자들이 국가 경제나 개인 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해 투표를 하는가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는 개인 경제보다는 국가 경제를 중시한다는 연구가 우세하다.

그간 경제투표에 관한 연구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투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그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분석 변수도 객관적 경제지표에서 벗어나 개인적, 회고적 평가 등 주관적인 경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인 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투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선진국에서 발견된 전통적인 이론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선진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주로 회고적이며 국가 경제 중시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실증 결과는 미래 지향적 특징을 나타낸다.

표 1.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경제투표 관련 연구

저자	대상국가	주요 경제 변수
Stokes(1996)	페루	인플레이션
Weyland(2000)	페루	경제성장률
Arce(2003)	페루	인플레이션, 실업률
Kelly(2003)	페루	미래지향적
Weyland(2003)	베네수엘라	미래지향적, 개인적 이해 중시적(pocketbook)
Nadeau et al.(2013)	베네수엘라	미래지향적, 국가 경제 중시적(sociotropic)
Brophy-Baermann(1994)	베네수엘라	회고적
Buendia(1996)	멕시코	인플레이션, 소득
Dominguez and McCann(1995)	멕시코	인플레이션, 실업률
Germano(2013)	멕시코	-
Canton and Jorrat(2002)	아르헨티나	회고적, 국가 경제 중시적(sociotropic)
Remmer and Gelineau(2003)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Anderson et al.(2003)	니카라과	회고적 및 미래지향적
Panzer and Paredes(1991)	칠레	실업률

자료: Oganessyn(2014, 122).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데 반해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Singer(2013)는 1982-2010년 기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투표를 분석해 선거시기마다 경제이슈가 바뀌고 있음을 밝혀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는 물가통제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었다. 그러나 2000-2010년 기간 인플레이션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유권자들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빈곤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Singer and Carlin(2013)은 1995-2009년 기간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을 대상으로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이 회고적 혹은 미래 지향적 투표 성향을 보이는지, 국가 경제 이익 혹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은 선거초기 미래 지향적 투표 행태를 보이지만 현 정권의 집권 경험이 축적될 경우 회고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최빈국을 제외하고 유권자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경제투표 이론에 근거한 실증연구는 대부분이 경제 변수가 선거 결과(대통령 선거 혹은 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와 경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찍이 Chappell Jr.(1990)는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인기도가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인기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인기도에서 GN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은 유권자와 여론 응답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여론 응답자들은 유권자들보다 인플레이션을 중시하는데 반해 GNP 증가율은 덜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투표결과 데이터와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와 인기도 조사에서 사람들이 경제지표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고적 투표와 미래지향적 투표간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 즉 지지도는 지도자의 과거 행동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에 선거는 미래의 약속과 더욱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McAvoy(2006)는 1977-2002년 기간 미국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대통령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Geys and Vermeir(2008)는 1959-2006년 기간의 통계를 활용해 세제부담과 세제구조의 변화가 대통령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대통령의 인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로 Arce(2003)는 1985-1997년 기간 경제 실적과 정부의 폭력 퇴치 정책에 근거해 페루 대통령의 지지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과 알란가르시아 대통령의 경제 운용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ampello and Zucco(2012)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일한 국내경제 변수보다는 일차산품 가격과 국제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Vartanian and Videira(2012)는 정치적 경제순환론의 관점에서 브라질 대통령의 인지도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업률, GDP, 금리를 대표적인 경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과 금리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반해 GDP 증가율이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표 2. 라틴아메리카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투표 관련 연구

저자	대상국가	주요 경제 변수
Remmer(1991)	아르헨티나 외 11개국	인플레이션, 환율
Roberts and Wibbels(1999)	아르헨티나 외 15개국	경제성장률
Benton(2005)	아르헨티나 외 12개국	1인당 GDP
Johnson and Schwindt Bayer(2009)	코스타리카 외 5개국	인플레이션
Johnson and Rhu(2010)	아르헨티나 외 17개국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Singer and Gelineau(2010)	아르헨티나 외 17개국	GDP 증가율
Lewis-Beck and Ratto(2013)	아르헨티나 외 11개국	회고적, 국가 경제 증시적
Singer and Carlin(2013)	아르헨티나 외 17개국	SR, SP, ER, EP*

\* SR(Sociotropic Retrospective: 국가 경제 증시적·회고적), SP(Sciotropic Prospective: 국가 경제 증시적·미래지향적), ER(Egotropic Retrospective: 개인 이익 증시적·회고적), EP(Egotropic Prospective: 개인 이익 증시적·미래지향적).

출처: Oganeyn(2014, 123).

Ferreira and Sakurai(2013)는 1999년 9월부터 2010년 5월 기간 브라질 대통령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를 분석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업률과 실질환율이 대통령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 그들은 특히 카르도주 대통령과 비교해 톨라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누린 이유를 양호한 경제적 여건에서 찾았다.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인기도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투표 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의 연구는 거시경제 변수와 선거결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거시경제 변수가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그나마 라틴아메리카에서 대통령의 인기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지표를 포괄하는 하나의 경제지표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를 사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투표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은 어떠한 경제지표가 유권자들이나 여론 조사 대상자들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냐이다. 거시경제지표 중 임금, 실업률, 물가 등의 변수가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Nadeau and Lewis Beck(2001, 160)은 포괄적인 하나의 경제지표로 국가비즈니스지표(National Business Index)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비즈니스지표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론 응답자들의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경제고통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수치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쿤(Arthur Okun)이 착안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하버드 대학의 바로(Robert Barro) 교수는 1999년 바로 고통지수(Barro Misery Index, BMI)를 만들었다. BM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에 금리를 더하고 실질 GDP 증가율과 GDP 증가율 트렌드 간의 차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케(Steve Hanke)

교수는 BMI를 변용해 전 세계 국가들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BM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금리에서 1인당 GDP 증가율을 뺀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2000년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초 권력적 대통령제(hyper-presidentialism)라 불리던 시기였다. 이는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고 인기가 높은 만큼 권한도 막강했음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인기도는 지지율로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2009년에 7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던 대통령은 6명에 달했으며, 30% 미만의 지지도를 얻었던 대통령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했다. 2009년 평균 60%에 달했던 대통령의 지지도는 2016년에는 22% 포인트 하락한 38%에 그쳤다. 2016년의 지지도는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2002-2003년과 비슷한 수치다.

2016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과테말라, 볼리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하회했다. 국가별로는 페루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19%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20%), 브라질(22%), 멕시코(25%), 칠레(28%), 파라과이(29%)가 이었다.

표 3.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

(단위: %)

국가/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3	'15	'16
아르헨티나	14	86	73	71	73	52	34	25	40	57	43	42	40
볼리비아	42	24	48	60	54	80	53	57	46	41	55	71	52
브라질	34	62	53	47	62	58	79	84	86	67	56	29	22
콜롬비아	13	64	75	69	70	68	75	72	75	75	53	51	32
코스타리카	52	37	50	32	56	55	45	75	53	48	22	36	30
칠레	50	54	64	66	67	55	50	85	55	28	29	49	28
에콰도르	30	27	20	24	23	74	68	69	58	64	73	50	40
엘살바도르	35	48	57	58	48	54	51	83	71	63	66	37	33
과테말라	12	15	36	44	45	28	46	52	47	43	47	38	56
온두라스	57	52	44	39	57	56	35		51	52	32	62	47
멕시코	47	45	41	41	60	60	58	52	59	50	46	35	25

국가/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3	'15	'16
니카라과	84	32	30	32	23	54	32	37	59	50	60	60	69
파나마	23	14	20	33	57	37	41	80	59	62	43	62	33
파라과이	5	8	57	39	33	17	36	69	55	49	30	26	29
페루	23	10	8	16	57	29	14	26	30	52	39	24	19
도미니카공화국			21	62	61	46	50	47	45	36	74	82	76
우루과이	30	16	12	72	63	61	61	74	75	63	61	72	43
베네수엘라	51	35	43	65	65	61	46	45	47	49	47	30	20
라틴아메리카 평균	36	38	42	49	54	52	52	60	56	54	49	4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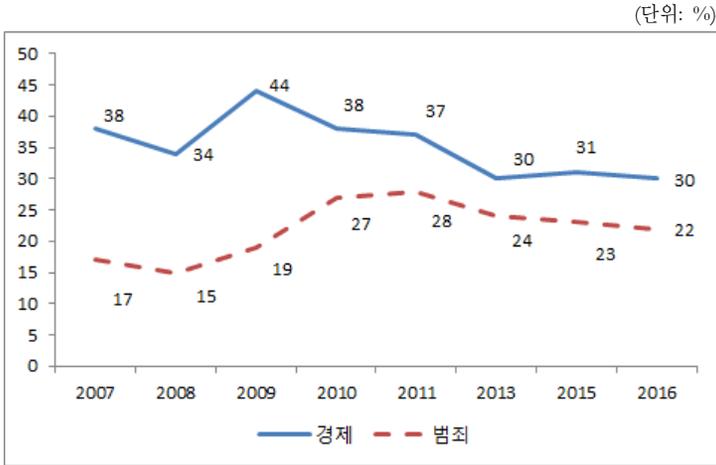
출처: Latinobarometro(2016, 36).

그렇다면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롤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격적인 실증연구에 앞서 일부 지표를 통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Latinobarometro(2016)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 원인을 일부 유추해볼 수 있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가를 묻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현 정부, 즉 대통령에게 가장 불만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제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불만이 2009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18개국 중에서 응답자의 37%가 경제문제를 가장 심각한 과제로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16%가 실업률을, 11%가 경제성장을, 4%가 공급 부족을, 3%가 각각 고물가와 빈곤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경제문제에 이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25%가 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1 여기서 경제문제는 실업률,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빈곤, 공급부족의 항목을 합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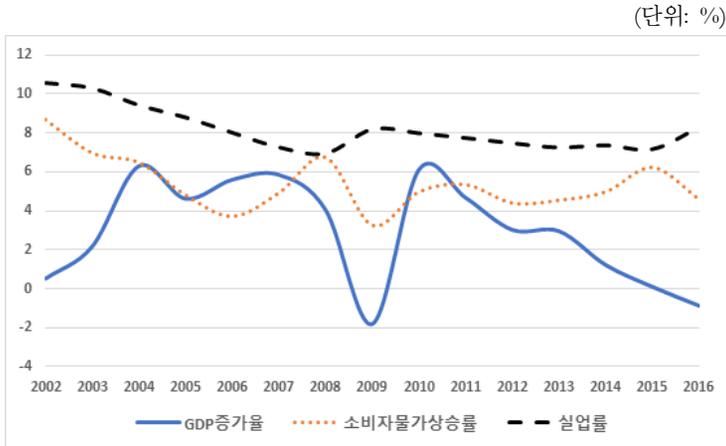
출처: Latinobarometro(2016, 55).

그림 1.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서 경제문제의 비중 추이

국가별로 경제문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1%에 달한다. 그밖에 니카라과(62%), 에콰도르(62%), 아르헨티나(56%)에서도 경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19%), 엘살바도르(20%), 칠레(21%)에서 경제문제는 라틴아메리카 비교대상 국가 중 시급성이 가장 낮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경제문제의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하락해 30% 선에서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은 실제 거시경제 지표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인 GDP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02년까지 잃어버린 5년의 시기를 거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연평균 4.2%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12년부터 일차산품 슈퍼 사이클의 종식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이 같은 경제성장의 부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002년 10.6%에서 2007년 7.2%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이후 악화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8.3%까지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2002년 8.6%에서 점차

하락해 2009년 3.3%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4.6%를 기록했다.



출처: IMF([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그림 2. 라틴아메리카 거시경제 지표 추이

## 실증분석

### 변수 선정 및 자료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투표 이론에 근거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거시경제적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라틴아메리카 각국 대통령의 지지도를 사용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연구하는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관된 시계열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다. 마침 *Latinobarometro*에서는 2002년부터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18개국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해 매년 제공해오고 있다.<sup>2</sup>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 설문조사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분석 기간은 이 기관에서 데이터를

2 조사 대상 18개국에 대해서는 표 3 참조. 조사 대상 국가는 카리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총 18개국)를 포함한다.

제공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한다. 마침 이 기간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차산품 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서부터 그 붐이 소멸하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일차산품 붐 전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는 앞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변수인 GDP 증가율, 1인당 GDP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지출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설명력 있는 종합적인 경제지표 발굴을 위해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경제고통지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변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조합한 국민들의 체감 경기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권이 착안한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를 사용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설명변수를 토대로 6개의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 경우 GDP 증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간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1인당 GDP 증가율이 클수록 대통령의 인기도는 높아진다. 당연히 1인당 GDP 증가율과 대통령의 지지도 간에는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유사한 성격의 GDP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을 별도의 설명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GDP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GDP가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GDP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이 국가 전체 부(富)의 증대를 보여주는 GDP 증가율보다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지표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경제투표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GDP 증가율은 국가 경제 지표로, 1인당 GDP 증가율은 개인 경제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정부 지출이 확대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한다. 정부가 사회보장 부문이나 인프라 개발에 지출을 확대할 경우 국민의 소득과 후생은 개선되고 이는 대통령의 지지율 증가로 이어진다. 넷째, 소비자물가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다섯째, 실업률도 대통령의 인기도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친다. 실업률 증가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기도는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제고통지수도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고통지수가 올라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와 실증분석시 기대되는 각 변수의 예상 부호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요약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료출처	기대되는 예상 부호
대통령 인기도	47.9	17.6	5.0	86.0	Latino barometro	
GDP 증가율	3.8	3.6	-10.9	18.3	IMF	+
실업률	7.2	3.1	2.9	22.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10.6	45.3	-1.5	720	"	-
1인당 GDP 증가율	2.5	3.6	-13.3	16.5	Global Insight	+
정부 지출	3.9	4.3	-12.6	21.0	Global Insight	+
고통지수	14.0	47.5	-5.3	748.2	자체계산	-

### 분석모형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패널 선형모형을 기본 방정식으로 설정하였다.

$$Pres_{i,t} - Pres_{i,t-1} = \alpha + \beta Pres_{i,t-1} + \gamma C_{i,t} + \delta I_{i,t} + \mu_{i,t} \quad (1)$$

식(1)에서  $Pres_{i,t}$ 는  $t$ 기의 중남미 각국의 대통령 지지도를 나타내며,  $C_{i,t}$ 는 통제변수이고  $I_{i,t}$ 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관심 변수이다. 그러나 식 (1)로 OLS를 추정하게 되면 관찰할 수 없는 각 국가의 고유한 요소로 인해 편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사용한 패널분석이 필요하다. 그 기본 모형은 아래 식 (2)와 같다.

$$Pres_{i,t} - Pres_{i,t-1} = \alpha + \beta Pres_{i,t-1} + \gamma C_{i,t} + \delta I_{i,t} + \delta_i + \lambda_t + \epsilon_{i,t} \quad (2)$$

식 (2)에서  $\delta_i$ 는 지역별 고유효과(fixed effect)이고,  $\lambda_t$ 는 시간효과(time effect)를,  $\epsilon_{i,t}$ 는 고정효과가 제거된 확률적 오차항이다.

본고의 추정 모형에서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은 추정의 편리성으로 실증분석에서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정효과 모형 결과와 더불어 패널 OLS 추정방식의 값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아래 표 5는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 5. 방정식 추정 결과  
[오쿤의 경제고통지수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실업률]

	패널 OLS			고정효과		
	(1)	(2)	(3)	(4)	(5)	(6)
고통지수	0.059*** (0.023)	-	-	-0.062*** (0.024)	-	
실질 GDP	-	0.894*** (0.295)	0.603** (0.299)	-	0.953*** (0.296)	0.671** (0.297)
실업률	-	-0.682* (0.407)	-0.477 (0.401)	-	-1.280*** (0.460)	-0.981** (0.455)
물가상승률	-	-0.027 (0.024)	-0.014 (0.024)	-	-0.024 (0.024)	-0.009 (0.024)
정부지출	-	-	0.889*** (0.249)	-	-	0.944*** (0.248)
관측개수	270	270	270	270	270	270
$R^2$	0.0272	0.1000	0.1500	0.0272	0.1040	0.1534

주: 1) ( )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임.

2)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시켰으나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이상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은 앞서 가설에서 기대했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질 GDP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과 대통령의 지지도 사이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있었다.

둘째, 정부 지출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정부 지출 증가율과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정부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인기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세 → 세수 증대 → 사회 및 인프라 부문에 막대한 재정 지출 등의 선순환 사이클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서는 현금 조건부지급 프로그램인 Bolsa Familia(보사 파밀리아)에 힘입어 많은 국민이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팽창적 재정 지출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대통령의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실업률은 기대했던 대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인기도 하락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의 결과는 최근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인기도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악화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넷째, 본 분석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는 소비자물가가 대통령의 인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부(-)의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소비자물가는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인기도는 물가를 잡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및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소비자물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에서 여전히 고물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소비자물가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소비자물가가 대통령의 지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분석한 경제고통지수의 경우 당초 기대와 합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고통지수(오쿤 지수)는 대통령의 인기도와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즉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제고통지수가 낮을수록 대통령의 인기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경제고통지수가 대통령의 인기도를 결정하는 종합적인 경제지표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경제투표 이론에 근거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여기서 경제성장은 GDP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GDP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세수 증가와 이에 따른 확장적 재정 지출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실업률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인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실업률이 높을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이 하락하고 실질 소득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대통령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석기간(2002-2016년) 소비자물가가 대통령의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분석 기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 물가가 크게 안정되면서 1980-1990년대와 달리 국민들이 물가통제에 대한 정부 능력보다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Singer(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인기도를 결정하는 종합적인 경제지표로서 경제고통지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그 결과, 경제고통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제 변수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와 대통령의 인기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GDP 증가율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당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할 때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안정보다는 성장에 두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증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국민들은 2000년대 들어 물가가 크게 안정되면서 물가통제보다는 경제적 기회 창출을 통한 실업률 축소 등 경제성장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nderson, Lawrence, Michael S. Lewis-Beck and Mary Stegmaier(2003), “Post-Socialist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Model of the Vote for Hungary and Nicaragua,” *Electoral Studies*, Vol. 22, No. 3, pp. 469-484.
- Arce, Moises(2003), “Political Violence and Presidential Approval in Peru,”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2, pp. 572-583.
- Benton, Allyson Lucinda(2005), “Dissatisfied Democrats or Retrospective Voters? Economic Hardship, Political Institutions and Voting Behavior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8, No. 4, pp. 417-442.
- Brophy-Baermann, Michelle(1994),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exican Ca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5, No. 1, pp. 125-135.
- Buendia, Jorge(1996), “Economic Reform, Public Opinion and Presidential Approval in Mexico, 1988-1993,”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9, No. 5, pp. 566-591.
- Campello, Daniela and Cesar Zucco(2012), “It’s the (World) Economy, Stupid! International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Success,” *IPES -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ociety*, pp. 1-26.
- Canton, Dario and Jorge Jorrot(2002), “Economic Evaluations, Partisanship and Social Bases of Presidential Voting in Argentina, 1995 and 1999,”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4, No. 1, pp. 413-427.
- Chappell, Henry W., Jr.(1990), “Economic Performance, Voting, and Political Support: A Unified Approa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2, pp. 313-320.
- Dominguez, Jorge and James McCann(1995), “Shaping Mexico’s Electoral Arena: The Construction of Partisan Cleavages in the 1988 and 1991 Nation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1, pp. 34-48.
- Ferreira, Alex Luiz and Sergio Naruhiko Sakura(2013), “Personal Charisma or the Economy? Macroeconomic Indicators of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Brazil,” *Economia*, Vol. 14, No. 3-4, pp. 214-232.
- Germano, Roy(2013), “Migrants’ Remittances and Economic Voting in the Mexican Countryside,” *Electoral Behavior*, Vol. 32, No. 4, pp. 875-885.
- Geys, Benny and Jan Vermeir(2008), “The Political Cost of Taxation: New Evidence from German Popularity Ratings,” *Electoral Studies*, Vol. 27, No. 4, pp. 633-648.
- Johnson, Gregg and Leslie Schwindt-Bayer(2009), “Economic Accountability in Central America,”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Vol. 1, No. 3, pp. 33-56.
- Johnson, Gregg and Sooh-Rhee Ryu(2010), “Repudiating or Rewarding Neoliberalism? How Broken Campaign Promises Condition Economic Voting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52, No. 4, pp. 1-24.
- Kelly, Jana(2003), “Counting on the Past or Investing in the Future? Economic

-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n Fujimori's Peru,"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3, pp. 864-880.
- Kim, Young-Tae(2005), "Economic Conditions and Popularity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ident: Afte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Vol. 4, No. 2, pp. 149-172.
- Kleykamp, David L.(2012), "The Economy and Presidential Approval," available at SSRN, <http://www.kleykampintaiwan.com/files/DavidWP1.pdf>
- Kramer, Gerald(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1, pp. 131-143.
- Latinobarometro(2016), "Informe Latinobarómetro 2016," *Latinobarometro*, pp. 1-76.
- Lewis-Beck, Michael S. and Maria Celeste Ratto(2013), "Economic Voting in Latin America: A General Model," *Electoral Studies*, Vol. 32, No. 3, pp. 489-493.
- Mcavoy, Gregory E.(2006), "Stability and Change: The Time Varying Impact of Economic and Foreign Policy Evaluations on Presidential Approval,"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9, No. 1, pp. 71-83.
- Nadeau, Richard and Michael S. Lewis-Beck(2001), "National Economic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3, No. 1, pp. 159-181.
- Nadeau, Richard, Eric Belanger and Thomas Didier(2013), "The Chavez Vote and the National Economy in Venezuela," *Electoral Studies*, Vol. 32, No. 3, pp. 482-488.
- Oganesyan, Rafael(2014), *Economic Voting in the Developing World*, Reno: University of Nevada.
- Panzer, John and Ricardo Paredes(1991), "The Role of Economic Issues in Elections: The Case of the 1988 Chilean Presidential Referendum," *Public Choice*, Vol. 71, No. 1/2, pp. 51-59.
- Remmer, Karen L.(1991), "The Political Impact of Economic Crisis in Latin America in the 1980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pp. 777-800.
- Roberts, Kenneth M. and Erik Wibbels(1999), "Party Systems and Electoral Volatility in Latin America: A Test of Economic,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pp. 575-590.
- Shin, Gye-Gyun and Jong-Bin Yoon(2009), "Economic Voting in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1996-2008,"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3, No. 3, pp. 231-253.
- Singer, Matthew M.(2013), "Economic Voting in an Era of (Non) Crisis: The Changing Electoral Agenda in Latin America 1982-2010," *Comparative Politics*, Vol. 45, No. 2, pp. 169-185.
- Singer, Matthew M. and Francois Gelineau(2010), "Heterogeneous Economic Voting: Evidence from Latin America 1995-2005," Paper prepared for the Latin American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 Singer, Matthew M. and Ryan E. Carlin(2013), "Context Counts: The Election

- Cycle, Development, and the Nature of Economic Voting,”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5, No. 3, pp. 730-742.
- Stokes, Susan(1996), “Economic Reform and Public Opinion in Peru, 1990-1995,”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9, No. 5, pp. 544-565.
- Vartanian, Pedro Raffy and Raphael Almeida Videira(2012), “Determinantes Macroeconomicos da Popularidade do Presidente da Republica: Uma Analise sob a Optica dos Ciclos Politicos Eleitorais (2003-2010),” *Revista de Economia Mackenzie*, Vol. 9, No. 2, pp. 39-64.
- Weyland, Kurt(2000), “A Paradox of Success? Determinant of Political Support for President Fujimori,”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3, pp. 481-502.
- \_\_\_\_\_(2003), “Economic Voting Reconsidered: Crisis and Charisma in the Election of Hugo Chavez,”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7, No. 7, pp. 822-848.

Article Received: 2018. 02. 02.

Revised: 2018. 02. 14.

Accepted: 2018. 02. 14.